

사랑과정성이 알알이 쌓여 -거여 3단지 노인회 무료급식2만 그릇 달성-

본교회 복지사역본부가 후원한 거여 3단지 노인회에서는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점심을 정성껏 차려드리기 시작한지 35개월만인 지난 7월 말 현재 연인원 2만 여명의 어르신들께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여 지난 8월 31일 작은 자축연을 가졌다. 그 동안 어르신들에게 넉넉하지도 않은 살림살이와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나 쉬지않고 어르신들과 한 공동체를 만들며 은혜의 밥상을 만들어 왔다.



참석한 조광민 목사는 기도를 통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해주신 봉사자님들 손길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은 식사 공동체를 이루어 가자는 말씀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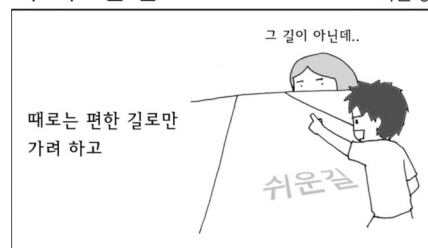
주님의교회 복지사역팀에서는 송파구 관내에서 독거노인 무료급식소(2), 독거노인 주택달사역 (48명, 주2회), 노숙인센터, 지체장애인시설, 시각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4) 한국심장재단 등 모두 11개소를 선정하여 매월 일정액을 후원하고 있다.

우리 주위에는 오직 따뜻한 마음과 열정으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엔 헌신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사회가 더욱 밝아지고 아름다울 수가 있다.

〈신형설 기자〉

주 따르는 길

허윤정



© 2010 By Heo

Kingdom Vision English Camp를 마치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이제 조금씩 쌀쌀해지는 가을의 문턱에서 뜨거웠던 지난 여름을 돌아쳐보는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2일부터 11일까지 주님의교회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영어캠프가 열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Footsteps라는 선교단체와 함께, 캠프를 통해 우리교회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많이 통용되는 언어인 영어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아이들이 품고 자라나야 할 선교적 비전을 보여줄길 소망하며 준비했습니다. 또한 미국 선교단체인 Footsteps는 이번 캠프에서 받은 교육비 전액을 온두라스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비로 사용하기에 간접적으로나마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작되는 일이었기에, 많은 의견의 차이와 염려들이 우리 안에 있었지만, 준비 팀으로 모인 목사님 세 분과 여러 집사님들이 모두 감사와 은혜로 섬겨 주셨습니다 매주마다 계속된 회의와 매 수요일마다 가졌던 기도회 시간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주님께 영어캠프를 올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캠프가 시작된 첫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일은 주님이 주관 하셨습니다. 각자 다른 재주와 성격을 가진 영어 캠프 팀원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참 묵묵히 잘 섬겨주셨습니다. 처음 예상과는 달리 더욱 많은 봉사자가 필요 했는데, 그때마다 준비된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모든 일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상황들도 발생 되었지만 모두들 더욱 헌신으로 섬겨주시어 잘 해결 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감사 드리는 것은, 미국 선교 팀과 우리 팀과의 화합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서로 다른 언어였지만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였습니다.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었는데, 초년이라는 단어의 뜻처럼 여러 해 걸리는 어떤 과정의 처음의 시기였기에, 많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보다는 더 발전된 내년을 기대하며 기도 합니다.



글을 마치며, 기도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과 봉사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 여름 휴가를 사용하면서까지 섬겨 주신 봉사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들이 계셨기에 "Kingdom Vision English Camp"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혜정〉



젊디젊던(?)시절에는 어른들의 말씀을 고리타분하게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나이를 한살 두살 먹다보니, 긴 세월을 통해 터득하신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와 그 분들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그분들의 삶에 점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믿음의 선배들께는 큰 지혜와 삶의 바른 방향을 배울 수 있어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 몇 년전 대예배시간에 한국교회 최고령 목사님인 방지일 목사님을 처음 뵈게 되었습니다. 100세가 되신 그 연세에도 당당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벅찬 감동이 일어 제 눈에는 연신 뜨거운 눈물이 흘렀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올해로 꼭 100세가 되신 방지일 목사님께서 쓰신 책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를 읽으며 그분의 당당함과 강건함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연약함을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눈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시56:8)라는 다윗의 시편말씀에서 제목을 따온 이 책에서, 방지일 목사님은 눈물의 사람이 되는 것을 자신의 평생의 기도 제목 중 하나로 삼고 계신다합니다. 눈물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 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물에 얹힌 이야기들을 쓰신 이 책에서 우리는 눈물에도 여러 종류와 단계가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그 회개의 눈물은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감사의 눈물로 이어지게 되며, 감사의 눈물은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랑의 눈물이라는 가장 고상한 단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흘린 귀한 눈물들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눈물병에 담으신다고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책은 목사님이 직접 겪으신 감동 넘치는 눈물의 현장들을 전해주는지라 그 이야기들을 읽으며 저 역시도 많이 울었습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감동과 신앙의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노목사님의 지혜 가득한 책을 읽는 것으로 우리의 복된 노년을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박윤정 기자〉

|오늘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
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_ 고후 5 : 17

통 권 _ 제 269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10년 9월 5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_ 롬 12:5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481~2 FAX. 416.5180

주님의교회 예수님의 친구 사역

마침내 시작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했던 주님의 교회 "예수의 친구" 사역을 2010년 9월부터 시작합니다.

준비 기간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며,
함께 기도로 동참해주신 교우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벅찬 사역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는 사역이기 때문이요,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사역이기 때문이요,
내 삶이 주의 거룩한 나라위해 쓰임 받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담임목사 박원호

1. 왜 예수의 친구 사역입니까?

예수의 친구 사역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당부하신 제자 사역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땅에 계시는 동안 가장 힘써셨던 사역을 우리도 참여함으로 이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 15: 15절)

2. 무엇이 목적입니까?

예수의 친구 사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사명이었고, 모든 사역과 가르침의 중심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 위해 헌신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새롭게 해야 할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의 친구 사역은 일반적인 제자 사역처럼 단순히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을 만들거나, 교회 성장을 위한 사역과는 구별됩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은 평신도라는 구조적인 틀을 벗어나서,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평신도라는 신학적 틀을 만들어서 목사와 신부에게 종속시켰고, 그럼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교회의 세력을 키웠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품기 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적대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과거의 잘못을 버리고, 용기있게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를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감을 갖도록 하며, 주님을 본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가치와 인격의 모습 그리고 삶의 모습을 가도록 함으로써,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의 나라 위해 헌신하도록 할 것입니다.

3. 어떤 사람이 "예수의 친구"입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제자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1)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응답하는 자
- 2) 주님의 부르심에 사명(vocation)으로 헌신하는 사람
- 3)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모든 현실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자
- 4) 성령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자
- 5) 제자 사역을 평생의 사역으로 삼는 자
- 6)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중심임을 깨닫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자
- 7) 예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나라 길임을 알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자

4. 친구들을 어떻게 선발하십니까?

첫 그룹은 시무 장로님들의 추천으로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서 선발했습니다.

5.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까?

예수의 친구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배우게 되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로 템 나 무



| 섬기는 삶 |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20: 28)

사람을 섬기게 하신다.

그것도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

되도록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셨기 때문이다.
섬김을 받아야 하실 분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셨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

스승이시면서 제자들을 섬기셨다.

자신을 해하는 사람까지 섬기셨다.

부모를 섬기셨고 어린아이를 섬기셨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셨다.

어떤 사람인가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주님!

사람 앞에서 낮아지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요.

어떤 사람인가를 따지지 않고 섬기게 하옵소서.

저를 섬겨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멘.

〈엄혜숙 기자〉

예수의 친구 사역	2면
베트남, 중국 비전트립 후기/수련회 후기	3면
2010 전교인수련회를 돌아본다	4 - 5면
선교의 방법과 해외선교 활동	6 - 7면
노인무료급식/2010 영어캠프 외	8면

* 우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의로움, 평화를 위한 헌신, 기쁨의 삶을 살기, 성령 안에 거하는 영적인 훈련, 돈을 다스리는 훈련, 공동체적 삶을 사는 훈련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도 중요한 부분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복음 전파 사역과, 제자 훈련 사역에 동참하도록 할 것입니다.

6. 어떻게 진행됩니다?

예수의 친구 사역은 3년의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3년간의 시간에 걸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 3년 동안 훈련함으로, 예수의 친구로 만들어져갈 것입니다.

첫째 해는 스스로 준비하는 해입니다. 이 동안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어진 자기 점검표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신앙 생활을 점검하며, 교회가 제공하는 양육 과정과 목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화", "그룹 역학", "영적 훈련", "12 단계 성경 공부" 등과 같은 과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목들을 미리 수강하신다면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해는 섬김이의 안내로 1년간(40주) 매주 2시간 동안 모여 소그룹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함으로 예수의 형제 된 모습을 갖추어갈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 가운데서 서로를 세운다면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셋째 해는 이제는 섬김이로 자격을 갖추는 해입니다. 이 동안 섬김이로서의 자질과 기술 등을 배우게 됩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위해 헌신하도록 부르심을 거룩한 사명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마 28:18) 당부하셨습니다.

7. 교육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1단계> 1년 과정 _ 매달 1회 모임(7,8월 모임없음) - 총 10회
년 2회 1박2일 세미나

훈련시작: 추천을 통하여 선발하고 선발된 대상에게 서신(초청편지, 서약서, 안내지)을 발송하고, 서약한 후 훈련이 시작됩니다.

진행방법: 개인훈련과정

- 1) 경건생활(매일 큐티)
- 2) 양육과정 선수과목 중 2과목 이상 수료
* 선수과목 : 내적치유, 재정훈련, 영성훈련, 공동체훈련, 하나님나라와 제자도, 리더십훈련, QT훈련
- 3) 정기모임 : 리더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점검과 코치

<2단계> 1년 과정 _ 매주 1회 모임(7,8월 모임없음) - 총 40회
년 2회 1박2일 세미나

진행방법: 그룹훈련과정

- 1) 형성된 그룹이 리더와 함께 매주 교육
- 2) 경건생활(매일 큐티)
- 3) 양육과정 병행 가능함(이미 선수한 2과목 이외)
- 4) 정기모임 : 모임전 - 모임을 위한 자료를 통한 선행습과 독서
모임 - 강의와 토론
모임후 - 실천
- 5) 3단계를 위한 각 팀(훈련생 3명이 한팀)의 훈련생 선발(6명 모집)

훈련내용: 학습과 훈련

- 1) 학습
 - 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적 배경
 - ②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 ③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
 - ④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 ⑤ 제자와 하나님의 나라
 - ⑥ 성도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

2) 훈련

- ① 영적 훈련
- ② 청지기 훈련(재정 훈련, 시간 훈련, 은사 훈련)
- ③ 공동체 훈련(그룹 역학)
- ④ 의의 훈련
- ⑤ 평화의 훈련
- ⑥ 기쁨의 훈련

<3단계> 1년 과정 _ 매달 1회 모임(7,8월 모임없음) - 총 10회
년 2회 1박2일 세미나

진행방법: 리더훈련과정

- 1) 경건생활(매일 큐티)
- 2) 각 팀별로 형성된 훈련생 6명에 대한 정기모임
각 팀별 훈련생에 대한 지침 및 지도
- 3) 정기모임 : 리더와의 정기모임
- 4) 훈련과정 수료

훈련내용: 자신이 리더가 되기 위한 준비

8.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의 친구 사역은 일평생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우리 각자는 일평생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책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9. 한 그룹은 몇 명입니까?

한 그룹은 7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소그룹 역동성이 힘들어지며, 진정한 영적 그룹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10. 매번 모임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먼저 서로 친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친교 시간을 가진 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어서 미리 나누어드린 자료들에 대해 서로 토의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모임에는 인도하는 섬김이와 함께 두 사람의 도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임을 준비하며 모임의 진행 상태를 점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11. 어떻게 전 교인을 예수의 친구로 만들 수 있습니까?

예수의 친구 사역은 재생산의 사역입니다.

3년의 훈련을 마치면 곧바로 자신이 훈련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혼자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3명이 함께 협력해서 사역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몇 년이 되지 않아 모든 성도들이 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12. 어떤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자칫 제자화 사역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거나, 아니면 평신도의 사역을 교회에 한정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 제자화 사역은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의 장애가 됩니다.

이 사역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모임에 참여할 마다 겸손한 자세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 베트남 비전트립 후기

① 메콩강을 거스르며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잊을 수 없어



우리 베트남 비전트립 팀의 주된 사역은 집짓기였다. 우리가 지어 주는 집은 지면에서 30센티 높이로 8평남짓 되는 콘크리트 바닥을 깔고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양철 지붕을 덮는 그야말로 소박한 단칸 집이다. 우리는 이렇게 지어진 집에 네 면의 벽을 양철로 잇거나 야자잎으로 엮어 만든 판으로 가리는 일을 하였다. 그리고 집을 다 지은 후에는 앞으로 이집에 살게 될 가정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들어간 지역은 베트남에서도 오지에 속하는 지역이다. 그 열악한 중에도 집이 없고 가장 어려운 가정을 찾아 집을 지어준 것이다. 이들은 평생에 자기 집이라는 것을 처음 가져보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이 집을 얻으면서 느끼는 행복은 우리가 좋은 아파트를 장만하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우리는 이분들이 느끼는 행복을 통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기도했다. 우리는 이런 집을 3채 짓는 동안 좁은 길을 오토바이를 타기도하고 배를 타기도하면서 베트남의 오지를 보면서 베트남 사람들의 속 깊은 아픔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영수 집사님과 심은혜 자매는 의료팀이 되어 마을 보건소에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었다. 이곳을 찾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처음으로 의사를 대하는 분들이었다. 두 팀원은 한 명의 통역 봉사자를 세워 환자들의 상황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정성껏 치료해주었다. 그러나 간혹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깊어 있는 사람을 대할 때에는 '주님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주님 이들을 구원해주세요' 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메콩강변에서 도도히 흐르는 누른빛 강물과 고달픈 삶을 이고 거슬러 오르는 배들을 보며 주님과 하루를 열던 시간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언제나 어려운 일에 먼저 몸을 던진 목사님, 제일 연장자였으나 늘 섬김의 자리에 계셨던 권사님, 청년들을 배려하며 중요한 순간마다 큰 힘이 되어주신 집사님, 힘든 수발을 정성껏 도우며 함께 기도한 자매님, 청년들의 제일 만형으로 언제나 솔선수범하며 베트남을 향해 뜨거운 마음을 품었던 형제님 모두 잊을 수 없다.

그러나 더욱 오롯이 떠오르는 것은 부족한 우리 팀을 통해 당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로 큰 기쁨 가운데 머물게 하였던 하나님의 임재이다.

〈방승훈 전도사〉

② 도움을 주러가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도전받고 비전을 새롭게 하게 되어

비전트립의 본래 목적은 도움을 주러가기 보다는 빛진 자의 심정으로 가서 오히려 자신이 도전받고 비전을 새롭게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베트남 비전트립에는 호치민에서 차로 약 4시간 걸리는 빈롱성의 한 시골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그분들의 집을 지어주는 일이 가장 큰 미션이었습니다. 접근이 쉽지않은 곳이라 버스로, 스쿠터로 때로는 수로를 따라 배로 이동을 해야 했을 정도로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분들에게 3채의 집을 지어드렸습니다. 비록 집을 몇채 지어드렸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한 일을 돌아켜보면 그저 사소한 일들 뿐이었고 차라리 그곳에 안가고 우리가 사용했던 경비를 그분들에게 드렸다면 더 많은 집들을 지었으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동이 터오는 이른 새벽, 메콩강변에서 말씀을 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셨고 당신의 기뻐하신 마음을 알게 하시며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허락하셨기에 조금도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현지에서 17년간 사역을 해온 김덕규 선교사님 부부와의 교제를

통해 베트남을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되었고 수년전 기본 적이 있던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와는 또 다른 독특한 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여년 전 의료봉사를 위해 베트남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 비교해보면 상전벽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이 나라는 엄청난 변화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호치민 시내의 우리의 명동처럼 변화하였고 고층 빌딩이 여기저기 올라가고 있었으며 거리에는 고급 승용차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내를 벗어나 시골로 조금만 들어가면 문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정글과 같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분들 대다수가 복음에 대해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빈부의 격차 만큼 영적인 격차 또한 클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분들도 한분 한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분들이며 우리처럼 구원받고 주님을 예배해야 할 분들입니다.

특별히 이번 비전트립에 참가했던 청년들, 한사람 한사람 모두 자랑스럽고 대견합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의 생각,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들도 있었을 터이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유모감각을 잃지 않으며 잘 지내주어 고맙습니다.

베트남과 메콩강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영익 안수집사〉

■ 중국 비전트립 후기

막연하게 여겼던 선교현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

처음 참가하는 비전트립이라 걱정반 설레임반으로 대련(大連)행 비행기에 올랐다. 우리의 최종목적지는 단둥(丹東)이지만 단둥으로는 직항이 없어서 대련으로 갔다. 마중 나온 선교사님과,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심양에서 하룻밤을 묵고 숙소 바로 앞에 서탑교회(西塔教會)를 방문하였다. 관리하시는 집사님께서 친절하게 맞이해 주셨고, 서탑교회의 역사와 현황을 알려주셨다. 서탑교회는 중국동북지방에서 가장 큰 조선족 교회이며, 주일 참석교회인원이 5,000여명에 달한다고 하셨다. 이어서 심양시내에 있는 동관교회(東關教會)를 방문하였다. 동관교회는 영국의 존 로스 목사님이 최초로 한글성경을 번역한 곳이다. 교회 옆 조그만 기념관에는 당시에 번역한 한글성경과 목사님께서 사용하시던 성경책 및 기타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목사님께서 우리 민족을 가슴에 품고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신 사랑과 신앙을 잠시나마 생각할 수 있었다. 실제 우리 민족의 복음의 시작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조그만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중국 단둥시로 압록강을 경계로 북한 신의주와 마주보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드나드는 관문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곳은 북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곳이며, 북한 측에서는 중국이나 외부세계의 소식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선교사님은 방문자선교를 담당하고 있다. 방문자란 탈북자와 다른 개념이다. 탈북자는 불법으로 북한국경을 넘은 사람을 말하며, 방문자란 합법적으로 중국비자를 받아서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북한사람을 의미한다. 중국은 아직도 외국인이 자국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선교사님은 선교사나 목사신분이 아닌, 떡집을 운영하면서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떡집에서는 주로 떡국을 생산하여 방문자들이 북한으로 들어갈 때 떡국을 실어서 보낸다. 떡국을 보내는 이유는 휴대가 간편하고, 장기간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용도(군량미 전용이나 장마당에서 거래 등)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팔고 남은 떡은 잘게 찢어서 잘 건조한 후 미숫가루로 만든다. 이것도 떡국과 함께 북한에 보내서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

다음날, 단둥에서 버스로 20여분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북한 지역으로 탐방을 할 수 있었다. 압록강에는 여러 개의 섬이 있는데, 이 섬 대부분은 북한 땅이다. 중국 배는 이 섬 사이를 운행하였다. 우리가 바라본 북한쪽 산들은 모두 민둥산이었다.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한 평의 땅이라도 더 경작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내고 밭을 일구는 것이다. 그러나 척박한 땅에는 작물이 잘 자라지도 못하고, 특히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내려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금번 비전트립에 참가하면서, 막연하게만 여겨졌던 선교현지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열악한 선교현지에서 위함을 무릎쓰고, 하나님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수고와 깊은 도전으로 다가왔다. 이분들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사역현지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

■ 수련회후기

사랑나무 아이들과 전교인 수련회에 참석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해도 해도 내 마음이 기뻐지는 말들.....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이기적인지 준비된 삶을 살면서 그 분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닌 고단한 현실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그리고는 많은 부끄러움을 갖고 사는 것은 아닌지.....

인생은 기다림이라는데 살면서 많은 것들을 기다리며 살아왔는데 기다림의 미학, 기다림의 철학, 기다림의 마음.....우리 모두에게 넘쳐난다. 그 기다림의 결과가 아름다울 때 흐뭇한 마음을 가지며 또 다른 기다림을 기대한다. 여름의 무성한 녹음과 햇살 저 너머로 가을햇살이 부서지는 환영을 바라다보며 사랑나무 식구들과 함께한 어린 맘, 어린 꿈들이 우리들 맘에 가득해지자 많은 눈물로 탁하고 어두운 것들을 씻어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철없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녹일 듯이 이글거리는 한 여름의 무더위를 건너가 보았다.

7월의 마지막 폭염이 내리쬘는 아침 사랑나무 아이들과 부모님 교사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전교인 수련회로 떠날 버스에 몸을 실었다. 조금은 막힐 것 같던 도로가 시원하게 뚫리고 도착한 곳은 전교인 수련회가 한창 진행 중인 충주호 리조트 미리 도착한 교우들의 환영을 받으며 1박 2일의 수련회에 참석을 하였다. 건물은 약간 낡았지만 골고루 갖추어진 장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에서 식사가 부진하기는 하였어도 사랑나무 아이들과 일박을 할 수 있다는 부푼 꿈에 가슴이 설레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우리들의 수련회도 시작되었다.

햇볕에 약한 아이들 때문에 걱정을 하였는데 해님이 구름 속에 숨어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그리고 돌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재빨리 대처해 주신 분이 계셨기에 시원한 강바람과 함께 유람선도 탈 수 있었다. 수련회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들이 돌볼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행복했다. 놀이 공원에서 텀블링을 새털처럼 가볍게 뛰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연합함도 저렇게 날려 보내고 건강한 아이들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들의 부모님들은 수많은 시간과 보내기에 얼마나 가슴에 새까만 연기가 날까? 예수님의 치유의 바람이 불어 그 새까만 연기를 날려주기를 기도로 도울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만이 있다. 자폐의 장벽을 뛰어넘는 아이들 그래서 부모님 가슴에 빨간 하트가 생길 때까지 동고동락을 하며 기도로 보태주어야 하는 다짐도 해 보았다.

처음 겪은 일박의 수련회 미숙한 부분도 많았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었다. '참석한 아이들 면역을 약하지만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행동의 모습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를 연발한다. 교회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눈을 감으며 '주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 같은 사랑이 넘쳐나기를 똑 같이 나누어 받기를 그렇지 않으면 남이 가지 못한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수 없을는지요, 우리들 욕심이 너무 크가요, 주실 만큼만 주세요.'하며 기도를 드렸다.

〈사랑나무 이정선 권사〉

2010 주님의교회 전교인수련회를 되돌아 본다

_ 2010 전교인수련회 총괄진행팀 / 정원영 안수집사

주님의교회에서는 최근 2년 동안 두 번에 걸쳐 전교인수련회를 진행하였다. 불과 몇 년 사이 교인들이 양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현재 전교인 숫자가 7~8,000명이라는 대형교회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교인이 많은 교회에서 '전교인수련회'를 기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2010 전교인수련회 계획>

두 번째 전교인수련회가 2010년 7월 말로 계획되었다.

1. 주 테마는 '주와 함께 걷는 길' : 2008년도 전교인수련회 때는 성극(제목: '건너가게 하소서' / 주요 등장인물 : 모세)을 통해 구약시대 광야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게 하시고, 성막(건축 및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케 하셨다면, 올 2010년도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주와 함께 걷는 길'이었다. 주 테마는 다시 가족의 길, 영성의 길, 섬의 길로 세분하여 기획되었다.

2. 수련회 장소는 충주호리조트 : 작년 말부터 교역자들이 다음의 조건에 부합한 장소를 찾느라 고심하였다. 즉 ① 우선적으로 1,000여명 이상 교인의 숙박이 해결되어야 하고, ②1,000여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강당이 있어야 하며, ③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있으면 좋겠고, ④마지막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 여러 곳을 조사하였으나, 서울 근교의 시설이 좋은 곳들은 가격이 매우 비싸거나 대규모 강당이 없었다. 최종 결정된 곳이 충주호리조트였다. 이곳은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곳이었다. (노후한 시설, 1층 홀 및 식당 홀 에어컨 미비, 그리고 열악한 식사 제공 등의 문제점들이 있었으나 저렴한 가격과 함께 주변의 넓은 야외 공간 등 다른 곳에서 찾기 힘든 이점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3.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는 수련회 : 2008년 전교인수련회는 어른들만 참여하였으나 올해엔 자녀들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전교인수련회 본래의 뜻을 살리도록 하였다.

4. 2박 3일의 일정 : 모처럼 서울 도심지를 떠나 자연 속에서 2박 3일의 일정 동안 풍부하고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2010 전교인수련회 계획 및 진행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모든 기획은 교역자회의에서 결정함(일정 및 장소 선정, 각종 프로그램 기획 및 분과별 조직 등)

둘째, 실무 부서로 총괄진행팀(전체 지원업무)과 10개 분과(독립된 사역)를 두어 운용함.

<2010 전교인수련회 행사내용>

1. 테마별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수련회의 내용을 더욱 알차게 꾸미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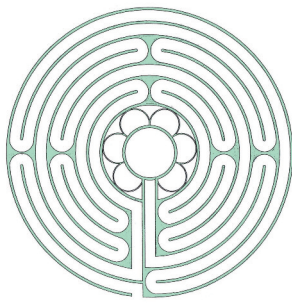
주 테마 _ '주와 함께 걷는 길'

소분류 / 프로그램 _

- 가족의 길 / ① 어울림 한마당, ② 가족레저 활동,
- 영성의 길 / ③ 예배, ④ 레버린스, ⑤ 말씀의 길,
- ⑥ 십자가의 길, ⑦ 주님의 발자취
- 섬의 길 / ⑧ 섬이 있는 찬양, ⑨ 충주호의밤

2. 프로그램의 다양화 : 총 9개의 다양하고도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상기)

3.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 소개 : 레버린스(Labyrinth/묵상의 길, 영적 오솔길)



레버린스 (Labyrinth) 평면도

레버린스란 12세기에 성지순례를 대신하여 프랑스 수도원에 설치한 영성훈련 코스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생각하며 침묵으로 걸으며 묵상하는 기도의 길이다.

박 원호 담임목사님께서 이 레버린스야말로 이번 2010 전교인수련회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다.

- 설치 장소 ▶ 충주호리조트 운동장 끝자락 잔디밭
- 설치 개소 ▶ 3개소
- 설치 과정 ▶ 교육분과1 박 재준 장로님의 철저한 고증과 준비(디자인)가 있었고 사전 예행연습을 거친 후, 수련회 전날 27명이 투입되어 하루 종일 땀 흘려 설치하였다.

아침 6시 기상 후 식사 시간까지 2시간 여, 교구별로 진행된 레버린스 체험 프로그램은 참으로 은혜 충만하고도 놀라운 체험의 장이 아닐 수 없었다. 레버린스에 가까이 이르면 안내요원의 강력한 제지가 있기 마련이다. 쉼-수신호 하나로 우리는 모두 침묵의 행진자들이 된다. 신발을 벗고 경건한 마음으로 걷는 기도의 길... 과연 우리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통회하며 진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심으로 주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터치하심을 조용하고도 강하게 체험케 하셨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2010 전교인수련회 진행과정>

1. 수련회 참가 교인 수는 1,270명 : 처음 예상했던 숫자는 1,000명이었다. 충주호리조트와의 계약도 1,000명에 해당하는 숙소(150실) 및 식사를 예약하였다. 총괄진행팀에서는 수시로 행정분과 등록팀과 연락을 취하면서 수련회 참가 총인원수를 파악하는데 애를 썼다. 계속 접수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접수 마감 전에 숙소를 추가 신청하였다. 원래 150실 예약에 25실 추가하여 175실을 배정받았다. 더 이상은 없었다. 1실 6인으로 계산하면 적정 수용인원은 1,050명이나 우리는 1실 7명으로 계산하여 1,220명 선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총괄진행 분과장인 최상인 장로님은 만약을 경우를 대비하여 더 많은 인원이 신청하게 될 경우에 본부요원(총괄진행과 행정분과) 및 각 분과 스텝들은 운동장에 200인 규모의 야전텐트를 치고서 뜨거운 광야로 나가기로 비상계획을 세워놓았다. ('1995년도 주님의교회 수련회' 때 횡성수련원에서 전교인이 군 야전텐트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다.)

최종 집계결과는 1,270명, 예상보다 많은 숫자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일부 교인 중에는 첫날 불참하거나, 둘째 날 상경하는 분들이 6~70명가량 있었기에 실제 상존하는 교인 숫자는 1,200여명 가량이었다. 그래서 1실 7인 기준으로 방을

배정하였다. 그러나 유동인원에 대한 파악이 힘든 관계로 등록팀에서는 현재인원 집계(식사인원)와 방 배정에 무척이나 애를 먹었다. (모든 스텝들이 고생하였으나 특히 등록팀(등록팀장: 김성운 안수집사)은 접수일 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밤샘과 누적된 피로로 인해 거의 실신상태가 되다시피 하였다.) 방 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호소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수고와 불편함의 여정마저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기쁘게 감내해 나갈 수련(의)의 한 과정임을 믿는다.

2. 도착하자마자 '어울림 한마당' 은 낮설기만 하였던 교우들 간의 벽을 허물고 친교하며 하나의 공동체로 변화시켜가는 귀한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운동장에서 진행된 프로그램[2는 뜨거운 여름 피약벌 아래 진행되었기 때문에 참여도가 매우 저조하였다. 결국 날씨의 문제인데 수련회를 꼭 아이들 방학 기간인 무더운 하절기에 개최해야만 하는지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다.



3. 7개 교구가 펼친 '주님의 발자취' : 주님의 생애를 7개 교구마다 특색 있게 발표함으로써 성도들에게 특별한 재미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은혜를 끼치는 귀중한 프로그램이었다. 또한 준비기간 동안 교구별 친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준비기간 동안 모이기가 매우 힘들고 리허설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고 호소하는 팀장이 있었음은 유익해 볼 일이다. 또 교구 시상이 굳이 필요했는지 재고의 여지가 있다.





4. 섬이 있는 찬양 : 둘째 날 오전, 여성 찬양대와 남성 찬양대의 멋진 연주가 있었다. 매우 성숙되고 품위 있는 합창과 중창, 그리고 솔로~ 언제 그렇게 완벽할 정도로 연습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여름날의 더위를 깨끗이 씻어버리는 청량제 같은 멋진 연주회를 만끽하였다. 박 원호 담임목사님의 깜짝 이중창 출연은 백미였다.

5. 말씀의 길 : 미국 LA 영락교회의 림 형천 담임목사께서 귀한 설교를 해주셨다.



(다음은 설교 요지) ‘주와 함께 걷는 길’은 영적으로 변화하는 길이다. 변화 없는 삶은 죽은 신앙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움직이라! 살아계신 주님을 섬긴다는 교인들이 만나기만 하면 세상이야기만 한다. 40년 동안 변화 없이 자리만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고정 의식은 버려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의 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의 능력을 받으려면; ①말씀을 (듣거나) 읽어야 한다. ②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하라. ③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④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성경은 지식 책이 아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모든 것(탐심, 탐욕, 복, 부귀영화, 이기심 등)을 버려두고 주님을 좇으라. 주님은 나의 거래대상이 아니다. 나의 주님이시다(My LORD~!!!) 주님의 싫어하시는 것을 버려라(그렇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모실까?)

준비된 우리들의 심령에 귀하신 말씀을 가득 채워주셨다. 아멘!

※놀랍기만 한 고등부

위십: ‘말씀의 길Ⅱ’ 시간, 목사님의 설교 직전에 무대에 올라온 고등부 위십 팀의 연기는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감명을 느끼게 하였다. 극히 절제되고도 강렬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표현은 상당한 수준의 우수작품이었다. 아~ 우리교회에 이런 훌륭한 자녀들이 있었다니~ 멀리서도 보이는 표정, 몸짓, 동작 하나 하나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랍고 충격적인 위십이었다.

6. 즐거운 가족 레저 활동 : 둘째 날 오후 3시간의 자유

시간, 공동체 분과 스텝들은 땀을 비 오듯 쏟아낸 오후였다. 수상레저(레프팅) 접수 및 안내, 2차~3차에 걸친 충주호 유람선 접수 및 안내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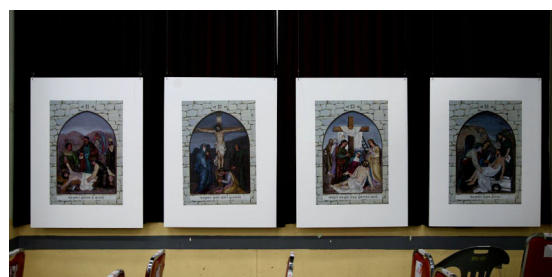


야만 했다. 인원 부족 등 어려운 점이 많았음에도 성실하게 책임 완수한 공동체 팀장께 박수를 보낸다.

모든 어린이 놀이시설은 교회에서 전세를 내어 초등학교 이하에게 무료로 제공하였다.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즐거운 비명소리를 듣는 기쁨은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참으로 다행스러웠던 점은 호수가에 물이 말라서 수영을 할 수 없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사장님의 배려로 넓고 큰 지막한 어린이 풀장이 마련된 것이었다. 공간이 매우 넓기도 했지만 물을 뽑아 안전한 높이로 맞추어 놓은 상태라서 어린이들이 맘 놓고 물놀이하기에 충분하였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아이들에게는 천국이 따로 없었다. 어린이 풀장 수상 안전요원으로는 정 요섭 목사님을 팀장으로 젊은 교육 전도사님들의 수고가 눈부셨다.

7. 성화를 통해 본 ‘십자가의 길’ (Via Dolorosa) : 라틴어로 Via Dolorosa는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의미로 빌라도 법정에서 끌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고다로 향해 걷던 약 800m의 길을 말한다. 갑작스럽게 결정된 프로그램이었는데도 밤새워 성화 보정작업을 해준 노현주 디자인 간사께 감사드린다. 폼보드 패널 제작 및 설치하는 교회 미술팀에서 맡았다. 현장 여건이 결코 녹록치 않았다. 대강당으로 사용할 교육관은 15개(개요 1개와 14처 성화)의 패널을 걸만한 조건이 마련되어있지 않았다. 서울에서 가져온 와이어와 접착제와 핀을 동원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습하고 눅눅하기 만만 날씨를 견디지 못하고 다음날 새벽에는 많은 그림들이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 부랴부랴 현장 응급조치로 의자에 세워놓는 아날로그 방식에 만족해야 했다. 미술팀 강 정임 집사는 계속 문자를 보내왔다. ‘집사님, 십자가의 길 그림이 잘 매달려 있나요? ... ‘혹시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 ‘집사님, 그림이 다 떨어졌어요~!!!’

(에피소드) 첫날, 선발대로 미리 충주호에 도착한 우리는 한참 플래카드, 텐트, 분부 설치 등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교회로부터 임 창남 차량팀장의 연락이 왔다. 드디어 마지막 버스가 출발한다는 것이었다. OK~ 출발~, 그런데 잠시 후 충주호 내에는 ‘십자가의 길’ 그림 30점(2 세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리 찾아도 없다. 비상~!! 교회에서 최종적으로 진두지휘해주신 최 중명 장로님과 통화, 교회 지하층 창고에 잘 모셔둔 ‘십자가의 길’ 30점 그림을 찾았다. 충주-교회-마지막 버스 간 삼각 통화, 되돌아와서 대기 중인 마지막 버스에 실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길’은 제



몹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8. ‘불타는 충주호의 밤’ (Campfire) : 둘째 날 저녁, 고등부 위십과 ‘말씀의 길Ⅲ’이 끝난 시간은 밤 9시30분, 앞서 진행된 주옥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하는 시간을 가지는 프로그램이 캠프파이어이다, 전교인은 대강당을 나와 캠프파이어가 마련된 야외무대로 나아갔다. 아이들도 교육을 마치고 이미 부모님들과 합류해 있었다. 어두움 속에 촛불로 장식된 오솔길을 따라 나아가니 환하게 장식된 야외무대가 보인다. 캠프파이어를 중심으로 넓게 원형으로 둘러앉았다. 곧이어 순서에 따라 찬양과 캠프파이어 점화

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폭죽이 터졌다..... 불이 꺼지고 모든 순서가 끝났다.



9. 폐회 예배 : 셋째 날 오전, 예배가 끝난 후 박 원호 담임 목사님의 제안으로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큰 원을 만들고 둘러서서 서로 손을 잡고 찬양하며 기도하였다. 용서와 화합과 결단의 기도를 하였다.

<2010 전교인수련회 결과 및 평가>

2010년도 전교인수련회에는 2박3일 일정에 10여 가지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고 시간표도 꽤 치밀하게 짜여있어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과연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 은근히 걱정을 하였고 총괄 회의 때 자주 논의가 되었었다. 그러나 교역자실에서 나오는 기획안은 확고부동하였고 분과를 맡은 부목사님들의 최선을 다하여 기획하고 준비하는 모습은 그러한 모든 염려가 기우임을 보여주었다. .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교역자와 장로님들,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봉사는 그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기에 충분하였다. 또 모든 교인들께서 수준 높게 지켜준 질서와 협조는 말로 일일이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2010 주님의교회 전교인수련회는 안전사고 한 건 없이 무사히 끝났다. 무섭도록 뜨거운 여름 태양 별 아래에서 묵묵히 사역을 완수한 안전분과 스텝들(안전, 119, 차량, 의료팀 등 40여 명)을 바라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그 분들의 땀에 젖은 헌신과 수고는 주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보상해 주실 것임을 믿는다. 그러나 몇 가지 프로그램 순서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실수도 있었다. 기획과 진행의 미숙으로 인하여 여러 교우들께서 안타까움을 호소하셨다. 많은 교우들이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고 또 날카로운 지적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셨다. 신실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권면 받을 수 있는 교인들은 건강하다.

분과별 자체평가서를 정리하면서 지난 3개월간의 준비과정과 수련회 진행과정을 조용히 되돌아보았다. ‘주와 함께 걷는 길’은 더욱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선교의 방법과 해외선교 활동 베트남 선교탐방을 중심으로

권순영 안수집사

본 교회에서는 글로벌시대 변화무쌍한 국제정세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국제선교는 어떤 방식과 과정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지 고민해왔었다. 국제선교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 그 해법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해보고 실제 전문가가 제시해준 가장 타당한 모델 국가인 베트남을 방문에 실제적용을 해보고 현지에서의 활동을 보고서 형식으로 게재했다. -편집자 주-

▶ 진행 개요

(1) 목적

주님의교회의 협력 선교사인 김덕규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베트남 지역의 선교 상황과 진행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현지 현황을 탐방하므로 향후 우리교회의 선교정책과 사역지원 방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당 회원 몇 분들이 현지를 방문 하였다.

(2) 탐방지역 베트남 남부의 중심도시인 호치민 시 일대와 호치민에서 2시간거리 있는 메콩강 하류 삼각주 지역에 위치한 빈롱 시 지역일대

(3) 기간 2010.8.1~2010.8.6 (5박6일)

(4) 참여자 박원호 담임목사님 외 9명

▶ 탐방 사역 진행 내용

(1) 호치민(Hochimin) 지역 탐방

가) 탐방 시작 전 선교 전략에 대한 토의 모임

장신대 김영동 교수의 주제로 <주님의교회 선교사역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와 제안>이란 주제를 가지고 향후 우리교회의 선교 방향과 현재 세계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교의 흐름을 검토해보고 특히 베트남 지역에서 전개하고 있는 선교의 방법들이 과연 현실에 부합하는 선교의 패턴인가를 토의하였다.

토론 가운데 특별히 부각된 점은 마을 공동체 개발 사역(CHE=Community Health Evangelism)으로 사역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로 전인적인 선교 방법을 택하여 진행 되어야만 향후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발전되어 갈수 있는 선교의 토대가 된다는 점이 거론 되었다.

나) 베트남 남부 기독교 총 연합회 방문

① 방문자 12명과 총회 쪽에서 부우 총회장, 꾸이 총서기, 투언, 번 등 목사들과 총회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기독교의 활동 현황과 내용을 설명 들었다.

1975년 통일 이후 활동을 규제 받아오다 2002년이 되어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인증을 받아 현재 교회는 남쪽이 43개 지역의 교회를 가지고 있으며 북쪽은 32개교회로 더 이상 확장을 못하게 하고 있으나 내년 기독교 100주년 기념해로 남북이 하나 되려고 노력 중이나 남쪽은 더 이상 규제를 풀지 않고 있는 형평이다.

② 2003년 신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으나 계속적인 규제로 교세확장을 더 이상 못하고 있으며 여러 교단을 하나로 합치도록 강요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당면한 문제는 인제양성이며 외국에 있는 교회들과의 교류는 별 문제 없는 입장이나 아직은 특별한 협약이나 협정은 없는 상태다.

현재 신학교는 년 100명씩 선발 4년을 공부시키고 1년을 필수적으로 전도사로 일하게 한 후 배출 한다. 그 후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에 부목으로 파송 훈련을 시킨 후 정식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 가장 애로는 공부 할 수 있는 교재가 부족하다 많은 지원을 바라며 긴급적이면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공부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일 외국에서 공부한다면 어느 나라가 가능하다고 생각 하느냐 라는 박

목사님 질문에 대하여 부후 부총회장은 미국은 나약대학, 싱가포르의 FBC 신학대, 홍콩에서는 트리니티 신학대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이다.

학생이 외국 어느 나라에서 공부를 했어도 베트남국내 오면 일단 6개월의 재교육을 실시한 후 정부의 승인을 받아 배치한다.

본 총회는 장로교와 비슷한 CMA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작년 2009년 처음으로 신학생300명을 배출 하여 전국에 파송하였으나 아직 많은 개척 교회들이 목사 없이 예배드리는 곳이 있는 현실이다.

③ 배출된 목회자가 독립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하다면 교회를 설립하는데 1~2억 동이 소요되며 운영비가 500~600만동이 소요된다. 한편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등지에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공식적인 해외교육은 어렵고 유학생 명분으로 파송은 가능하다. 어린이 사역에 대한 박원호 목사님의 질문에 어린이 교육에 집중하고 있으며 1년씩 교과 과목을 준비하여 교육하며 추석이나 어린이날에는 집중교육을 시키는데 효과가 좋은 편이다. 한편 여성교육에도 힘을 기우리고 있으며 이를 위해 총회에 여성분과를 별도운영 중이다.

④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나라는 조원호 장로님의 질문에 총서기 꾸이 목사는 베트남의 초기 기독교 전파된 다낭을 중심으로 6월12일부터 3일간 행사가 진행될 것이며 하노이에서 “주님이 하신일”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그 다음 호치민에서 “감사”라는 제목으로 행사를 할 계획이다. 총 예산이 40만불이 소요되고 밤에는 전도 집회를 집중 할 것이나 정부의 허가를 아직 못 받은 상태로 잘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비록 정부의 승인을 득한 후 활동을 해야 하나 전반적으로 기독교 자체적인 활동은 진행되고 있었다.



베트남 총회임원과 당 회원 기념촬영

다) 베트남 총회 신학교 방문

-총장 Thai Phouc Trong 목사의 학교소개로 새로 신축한 신학교와 기숙사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다. 기숙사 2동중 1동과 강의동 등 총 40억 원을 투자 그중 5억 원을 부산양정중앙교회에서 제공 준공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채플실과 기숙사 1동을 추가로 지어야 하는데 자금이 많이 소요되어 기도중이란 다. 박 목사님은 헌금을 제공한 양정 중앙교회의 담임과 동창생으로 참으로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하여 대단히 기쁘다고 하였으며 동행한 김영동 교수는 2년 전만해도 계획만 세워놓은 어려운 상태였는데 실물을 대하니 하나님께 감사드린 다며 향후 교육재단끼리 상호 발전을 위하여 좋은 교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의 말을 전 하였다. 2003년 1,2기 약 150명은 이미 배출하여 현지에 나가 활동 중이며 현재3,4기 약 200여명이 수업 중이고 내년에 5기를 모집 예정이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인재를 어떻게 잘 길러내느냐가 중점을 두고 있다고 총장은 강조하였다. 이미 완공된 기숙사도 12층이나 되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 운영 중인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베트남 총회 신학교 신축 강의 동

(2) 빈 롱(Vinh Long)성 사역 지 탐방

가) 한국 교회 후원으로 설립된 유치원 방문

원장이 반갑게 우리를 맞이 해주며 안내와 설명을 해주었다. 본 유치원은 1995년 착공 1997년 완공한 1층과 2층 약 합하여 약 100평 정도의 아담한 유치원 이다. 현재 본 건물은 약 4만 불이 소요되었으며 토지는 400m2이고 당시에 27,000불에 매입하였었다. 1년에 약 140명의 아이들을 선정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약 300명 정도가 졸업하였다 설명을 하였다. 정식교사가 6명 회계2명 보모가 5명이 근무 중이며 많은 아이들이 입학을 원하지만 수용의 한계로 더 이상 못 받는 것이 아쉽다. 대상은 4,5,6세로 거의 기부금으로 운영하며 한아회(협력 김덕규 선교사가 속한 NGO 단체)에서 많은 도움으로 지금도 전체 28명의 보육 교사들에게 월 10\$씩을 도와주고 있다. 가끔 한국에서 대학생 청년들이 무연극 찬양 등을 준비 공연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이들을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모두가 초롱초롱한눈망울들이 아주 예뻐다.



천진난만한 유치원 아이들 간식을 즐기는 어린이들

나) 송의 백스 빌리지(빈민 현 사회복지센터) 방문

베트남의 무의탁 노인과 고아를 위한 시설 및 청소년의 직업교육을 시키는 복지 센터로 2004년 12월 7일 300평의 토지에 송의 교회와 영안모자 회장 백승학씨의 후원으로 한아봉사회가 협력하여 빈민(Vinh Min)현에 기증한 시설이다. 송의교회에서는 매년 의료 선교를 이곳을 중심으로 베풀어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오지 않았다. 초기에는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의사와 간호사가 배치 운영하였으나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철수한 상태라 한다. 이곳에서는 계속적인 후원을 원하나 인민위원회에서는 재정의 부족으로 생계비 수준만 지원하고 있어 아주 열악한 상태였다.

건물 상태도 상당히 부실하며 보수 유지를 하지 않아 여러 군데 금이 가고 각종 시설이 낡아있는 상태여서 기거하는 노인 과 아이들이 아주 불쌍해 보이기도 했다.

김덕규 선교사는 노인대학까지 고려했으나 지원이 끊기며 취소한 상태란다. 이 지역 인근에는 캄보디아 출신들이 많이 살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 나라에서는 무시를 당하는 계층이라고 했다. 이지역과 시설에 관련하여 소송불교 스님이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면 그 몫은 김덕규 선교사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 했다. 이곳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선교 학을 공부한 협조자가 추가로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 했다. 이 정도라도 견디어 가는 것은 청주의 상당교회

의 후원의 덕분이라고 김 선교사는 강조했다.



송의 백스 빌리지 입구

다) 빈롱 현지 중앙교회 탐방

최초 설립은 1924년으로 무려 86년 전 설립된 교회란다. 현재는 당의 승인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교인은 약 600명 정도가 재적교인으로 등록 되어있으나 출석교인은 200~300명 정도이다. 현재 본 교회 건물은 15년 전 미국 선교재단의 협력으로 지어진 것이란다.

아침 방문시간에는 이교회 담임 목사님은 장례식에 발인 예배에 가고 없었으며 장로님 한분이 안내를 해주었다. 교회내부에는 성가대 석도 있는 약 300명이 앉을 수 있는 시설 이였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우선 이교회에서 한국 교회의 후원으로 개척한 농촌교회를 방문하기 위해 나왔으며 오후 이교회 담임목사님이 오면 다시 오기로 하고 출발했다.



평소 참석하는 교우들 사진

라) 한국교회 후원으로 개척한 농촌 개척교회 탐방

-처음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고 하여 모두가 겁을 먹으니 현지교회 장로님이 조그마한 보트를 준비했으니 배로 가자고 제의 12명이 타고 메콩강 지류를 따라 30분정도를 올라가니 강에서 멀지 않는 곳에 아담한 개척교회가 나타났다.

배를 타고 가는 강가는 너무나 아름답고 물위에 떠있는 풀들이 너무나 멋진 경치를 연출해 준다. 모두가 감동적인 표현들이 터져 나올 정도로 환상적이었다.

이런 개척교회를 한국교회의 지원을 받아 4곳을 개척했으며 그중 한곳이란다. 한국교회에서 1,000불을 지원 받아 이미 또 하나의 토지를 구입한 상태며 개척교회는 운영비로 월 50만원 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했다. 인민위원회에서 벽돌이나 콘크리트 구조로 짓는 고정건물은 잘 허락하지 않으며 갈대 등 자연 재료로 짓고 밖에는 간판을 걸지 않는 조건으로 허락하고 있단다. 한국교회에서 500\$ 정도를 지원하면 자재를 구입하고 건축공사는 교인들이 봉사하여 교회를 짓고 있으며 보통 50~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규모로 짓고 있단다.

교인의 전도는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은 금지되어있고 일단 교회 안으로 인도하여 교회 안에서 믿음을 권유하여 예수님을 영접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확대를 시켜가고 있으며 영접 후 6개월간 새 신자 교육을 시킨 후 세례를 베풀도록 하고 있었다. 이마저도 WTO 가입 조건으로 국제적으로 권유를 받은 후 허락했다고 했다.

탐방한 당 회원들이 손에 손을 잡고 교회의 발전과 베트남 농촌에서 많은 교우가 확장되어 가도록 기도 후 과일 대접을 받고 다시 배를 타고 본교회인 중앙교회로 복귀했다.



개척교회 내부에서 선교사의 설명

-배를 타고 다시 빈롱 중앙교회에 돌아와 본 교회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목회를 한다는 빈롱 중앙교회 보민담 담임목사님과 만나 현재까지 여러 모양으로 도움을 줘서 고맙다는 인사와 더불어 향후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개척교회를 위한 헌금과 체육 물품을 전달하고 교회를 떠나 다음 사역지인 집짓기 현장으로 향했다.



빈롱 중앙 교회 담임 및 장로와 대담

마) 영세민을 위한 집짓기 사역 장 방문

-평생 움막 같은데서 아버지와 아들 며느리 아이들이 같이 사는 최저 생계 유지자를 위한 한아 봉사회에서 인민위원회와 연합하여 한 채당 800불을 지원 지어서 기증하고 있는 사역이다. 기간은 2주가 걸리며 비전트립 팀이 올 때는 후반 일주일 동안만 봉사하고 기증식을 마치고 사역을 마무리 하도록 하고 있단다. 지금까지 한아 봉사회에서는 1천여 채 이상을 지어 기증했으며 계속해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토지는 대부분 자신들이 가진 토지에 하므로 토지를 사는 일은 없으며 전에는 움막같은 집의 철거까지 도왔으나 지금은 스스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지역 통제로 보면 앞으로 도 약 2만채 정도가 더 지어져야 영세민의 주택이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규격은 4m X 8m 로 인민위원회에서 정한 표준 규격이며 진행은 후원을 하면 인민위원회에서 각종 자재를 구입해준다 구조는 앞면만 붉은 벽돌로 쌓고 나머지 벽은 막대기 에 아자수 잎으로 엮은 갈대로 마감하는 것이 전부이고 지붕은 철 각파이프를 석가래를 걸어 함석지붕을 씌우고 바닥은 콘크리트로 만든 보도블럭을 깔면 끝이 난다. 조상대대로 움막집에 살다가 이들이 집을 선물 받으면 맨션아파트를 받은 것 이상으로 기뻐하며 감사한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다만 몇 채라도 지어 도움을 준다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며 다음 방문지인 호치민 인근에서 체육선교에 맘을 흘리는 한영국 선교사 사역지로 향했다.



비전트립 팀의 사역 자원모습

(3) 베트남 체육 선교 현장 방문

2시간 가까이 버스가 운행된 후 호치민을 막 진입하면서 인근에 위치한 선수들의 숙소인 기숙사에서 한영국 선교사와 아이들의 영접을 받고 체육 선교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다. 선수로 선발하여 유지하는 청소년의 12세에서 16세 약 40명이며 15명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25명은 자기 집에서 다닌다. 한영국 선교사는 할렐루야 축구팀에서 활약했으며 베트남 국가 팀에서도 2년 정도를 활동한 경력이 있었다. 선교의 뜻을 품고 장신대 대학원에서 수업 후 이곳에 축구 교실을 열고 선교활동에 정진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작년에는 호치민 청소년 리그에서 최우승을 달성하기도 했단다. 인근 탄롱에 대만계 회사가 소유한 운동장을 빌려 하루에 한 시간씩 연습을 하고 있다. 목요일과 일요일에는 정식 경기장을 빌려 정식 경기를 하기도 한다.



당회에서 준비해간 스포츠용품 전달

(4) 호치민 지역 선교사 초대 만찬(2010.8.4)

호치민 지역 파송 선교사를 위로하는 주님의 교회 주체 만찬을 베풀고 많은 교류를 나누며 이 지역 선교에 대한 비전과 현황을 설명 듣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각자 임무와 사역은 다르지만 자주모여 전략을 협의하고 사역에 공조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선교사 모임회장은 한영국 선교사가 맡고 있다고 했다. 많은 대화와 교류의 시간을 가진 후 일차 귀국하는 장로님들은 공항으로 향하였다.



선교사들을 격려해주고 있는 박 목사님

▶ 탐방에 따른 결언

1975년 통일 직 후 기독교인의 탄압과 감시가 대단했으나 도이모이 이후 국제적인 교류와 WTO에 가입하면서 종교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된 실정이나 아직도 많은 규제와 일일이 승인의 절차는 밟아야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진 상황이었다.

도심지를 중심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하며 당회원이 방문한 빈롱 지역은 메콩강 삼각주를 중심으로 전래적인 농촌 지역으로 빈민층이 다수가 살아가는 지역이었으며 그만큼 도울 일도 많은 지역 이였다. 현재까지는 <한아 봉사회>라는 NGO 단체를 통하여 많은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져 왔으며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동참하여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부터 협력 선교사로 선정된 김덕규 선교사를 중심으로 향후 사역과 지원에 대한 고찰을 하는 값진 탐방의 기회였던 것 같다. 동행한 김영동 장신대 교수의 학구적인 관찰과 주님의교회 당 회원들의 세심한 탐사 및 의견 교환이 앞으로 당 교회의 선교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한다.